



Aline: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반 투자 서비스 디자인 개발

ALINE: Design and development of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based investment service

연구책임자 이상수 소속학과 산업디자인 홈페이지 <http://www.nextinterfacelab.org>

'Aline'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가치관이 반영된 건전한 투자와 소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한 서비스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기반하여, 기업이 얼마나 우리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지, 지배구조는 건전한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직관적인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ESG에 기반해 건전한 투자 및 소비를 유도하는 개념을 구체화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형태로 디자인하여 상용화한 사례로,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인 iF어워드에 일반 기업 경쟁 부문에 참가해 서비스디자인 부문 최고점을 득점, 1만여개의 경쟁작품 중 75개의 출품작에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의 상인 'Gold Award'를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정제된 사용자경험(UX) 디자인을 통해 투자 및 소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Aline은 iF 디자인어워드의 서비스디자인 부문 표지 작품으로 게재된 것과 동시에 iF가 지구의 날을 맞아 발행한 '2020-2021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소비를 위한 디자인 10선'에도 선정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재 NH투자증권의 모바일 투자서비스 '나무' 앱에 일부분이 실제로 적용되어 실제 대중들의 건전한 투자를 돕고 있다.

1. 연구배경

오늘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그들의 투자 행위를 통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뛰어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대중 및 투자자의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커져가는 잠재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금융 및 투자 서비스는 재무제표, 수익률, 거래 수수료 등 기업이 행하는 사회적 영향력과는 무관한 경제적 지표들만을 통해 기업의 전망을 평가하여,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기존 투자 방식은, 높은 투자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사회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회사에 투자하여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일조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수익만을 목표로 한 투자는, 기대 수익에 이르지 못했을 때 투자자에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장기 투자를 가로막아, 오히려 수익률 악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를 함으로써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실행하여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Aline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가 사회와 환경 등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가치관이 반영된 건전한 투자와 소비를 지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2. 연구내용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기반하여, 기업이 얼마나 우리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지, 지배구조는 건전한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이를 투자 서비스로 구성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의 형태로 개발하고자 했다. 먼저, ESG의 주요 항목들을 6가지 주요 색상으로 색상 코딩하여, 핵심 가치들을 직관적으로 사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색상은 핵심가치 영역을 의미하는데, 빨간색은 기후변화, 노란색은 노동복지, 녹색은 자원관리, 하늘색은 공해 및 폐기물, 파란색은 제품 책임, 분홍색은 기업 윤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색상을 각 기업에 대해 공개되어있는 ESG평가 결과를 조합하여, 각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색상 그라디언트를 구성하도록

고안했다. 색상 그라디언트는, 사용자의 투자 포트폴리오, 소비 내역 등 Aline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일관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기업 정보, 현재 투자 내역 및 소비 내역이 ESG를 기준으로 한 개인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컬러 코딩을 통한 직관적인 정보 표현은, 금융에 익숙한 사용자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용자도 본인의 가치관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가치관에 맞는 투자처를 자동으로 매칭시켜주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높은 투자 진입 장벽을 낮췄다. AI 로보어드바이저는 사용자의 투자 성향과 가치 모두에 부합하는 좋은 잠재적 투자처 및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을 연결해준다. 또한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황에 맞게 전달하여 금융, 투자, ESG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개념을 배우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3. 기대효과

Aline을 통해 투자자는 환경과 사회에 이득이 되는 회사에 더 많은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투자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수익 창출 이상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보람과 즐거움은, 단기적으로 기대 수익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추구하는 더 큰 가치에 부합함을 인식함으로써 단기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착한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ESG 등급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안겨주는 경향이 있음이 기존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나아가, Aline은 금융 및 투자 지식이 적은 사용자들도 쉽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시민권(financial citizenship)을 누리는데 기여한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회사에 투자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높이고 성장할 가치가 있는 회사를 돕는 사회적 선순환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할수록 '착한 기업'은 더 성장할 것이며, 이 선순환은 우리 사회와 지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SG기반 투자 Aline은 2021년 12월 현재 NH투자증권의 모바일 서비스인 '나무' 앱에 일부 적용되어, 실제 투자자들에게 ESG기반의 건전한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1. ALINE 대표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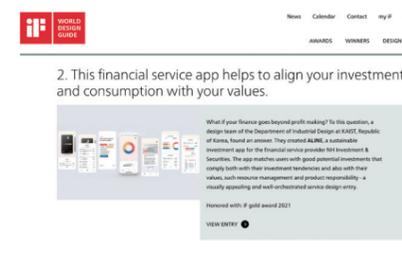


그림2. iF '2020-2021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소비를 위한 디자인 10선' 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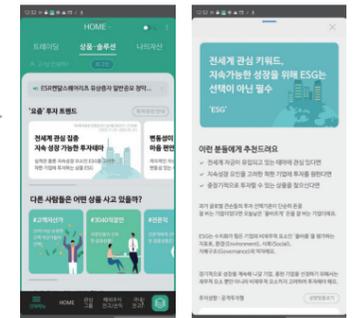


그림3. NH투자증권의 모바일 투자서비스 '나무' 앱에 실제 적용된 화면

연구성과	수상	iF Design Award 2021 서비스 디자인 부문 Gold 수상 (상위 1%, 1만여 개의 프로세서널 경쟁 작품 중에서 75개의 출품작에 수여, 서비스디자인 부문 최고득점) Red Dot Design Award 2021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 수상 iF 디자인어워드 2021의 서비스디자인 부문 표지 작품으로 게재, '2020-2021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소비를 위한 디자인 10선' 에 선정 NH투자증권의 모바일 투자 서비스 '나무' 앱에 일부 적용 (NH투자증권 나무앱의 2021년 고객만족도 1위 달성에 기여)
	홍보	언론 보도 50여건 이상
연구비 지원	NH투자증권-KAIST UX디자인 연구센터	